

사회복지 주간 동향(22.7.25.~7.29.)

1. 용인시 정책 동향

1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포곡읍 저소득 어르신에 보행보조기 전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지원 >



-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미숙)가 32명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방문해 보행보조기를 전달했다고 20일 밝힘
 - 이번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은 신체활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진행
 - 보행보조기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중 보행에 불편함이 있는 어르신에게 지원했다. 보행보조기는 핸드 브레이크와 보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좌식 기능도 갖추고 있음
 - 협의체는 보행보조기를 전달하면서 사용법을 설명하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 살핌
 - 이미숙 위원장은 “어르신들이 보행보조기로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와 함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함
 - 읍 관계자는 “협의체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세심한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며 “읍에서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포곡읍 맞춤형복지팀)

2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신갈동, 어려운 이웃 발굴 위해 홍보물 비치



-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홍보물을 제작, 민원실에 비치했다고 21일 밝힘
 - 홍보물은 일회용 비닐, 주방세제, 여행용 세면도구세트 등의 생활용품으로, '작은 관심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주세요'라고 적힌 스티커 문구를 부착, 사각지대 발굴에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함
 - 동은 또 다수의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도 홍보물을 전달
 - * 동은 위기가정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공공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나갈 예정
 - 동 관계자는 "도움이 절실한 복지사각지대 이웃을 찾기 위해 홍보물을 비치했다"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동으로 꼭 연락해주기 바란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신갈동 맞춤형복지팀)

3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동백3동 협의체, 홀로 어르신 생신 선물 전달



- * 용인시 기흥구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곽근배)가 7월 생신을 맞은 관내 저소득 홀로 어르신을 찾아가 선물과 함께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24일 밝힘
 - 협의체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저소득 어르신을 위해 매월 생일축하 행사를 열고 있음
 - 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김모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정성껏 마련한 케이크와 과일 등을 전하고 생활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등 안부를 확인함
 - 김 어르신은 “늘 혼자 지내다 보니 생일인지도 잊고 사는데 이렇게 찾아와 축하해주니 든든하고 감사한 마음이다”고 말함
 - 곽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해 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말함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동백3동 맞춤형복지팀)

4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보양식 드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보내세요”

< 용인시, 관내 주민단체서 초복 맞아 어려운 이웃에 삼계탕 등 대접 >



- * 초복을 맞아 용인시 관내 주민단체들이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삼계탕 등 보양식 대접에 나섬
- 기흥구 동백3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착한가게인 자작나무갈비 용인 동백점에서 갈비탕을 구매, 저소득 어르신 20가구에 전달
 - 수지구 풍덕천2동 협의체도 관내 새마을 경로당과 저소득 어르신 10가구에 삼계탕과 과일, 음료수 등을 전하고 안부를 확인함
 - 죽전2동 협의체는 홀로 어르신과 어르신 부부 등 저소득 어르신 30가구를 찾아 삼계탕과 수박을 전하고 건강 상태를 살핌
 - 앞서 14일엔 기흥구 마북동 협의체가 관내 중증장애인과 홀로 어르신 등 취약계층 30가구를 방문해 삼계탕과 열무김치 등을 대접
 - 기흥동 협의체는 저소득 어르신 30가구에 한일마을 운영위원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삼계탕과 김치, 과일, 음료수 등을 전함
 - 신갈동 협의체는 관내 저소득 어르신 50가구에 간편 삼계탕 3팩과 밀반찬 1종을 전달하고 안부를 챙김
 - 같은 날 수지구 상현2동 협의체도 홀로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등 30가구에 삼계탕과 김치 등 보양식품을 포함, 수지신협 상현지점이 후원한 홍삼 영양제를 전달

- 이날 풍덕천1동 협의체도 관내 만세삼계탕(대표 강서호)이 후원한 삼계탕을 저소득 가정 40가구에 직접 전달
- 지난 13일엔 처인구 양지면 협의체가 저소득 가정 90가구를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선풍기를 전하고 안부를 확인
- 수지구 죽전3동 협의체는 저소득 가정 50가구에 관내 삼계탕 전문점에서 교환할 수 있는 한방삼계탕 식사권(2만원 상당)을 전달
- 기흥구 상갈동 주민자치위원회도 지난 12일 직접 조리한 삼계탕과 제철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양지면, 상갈동, 기흥동, 마북동, 신갈동, 상현2동, 죽전2동, 죽전3동, 풍덕천1동, 풍덕천2동 맞춤형복지팀)

5 용인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안내

용인 곳곳서 어려운 이웃의 건강한 여름나기 위한 나눔 실천



* 저소득 가정, 홀로 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한 나눔들이 용인시 곳곳에서 펼쳐짐

- 먼저 처인구 역북동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역삼봉사회(회장 박순자)가 삼계탕과 김치, 과일 등 140만원 상당의 복달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38명의 홀로 어르신에게 전달함
 - 유림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고상혁)가 저소득 어르신 20명에게는 삼계탕을, 관내 복지시설 3곳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66명에게는 후라이드 치킨을 지원
 - 기흥구 서농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권영지)가 저소득 홀로 어르신 30가구를 직접 방문해 삼계탕과 밑반찬이 담긴 '사랑의 복달임 꾸러미'를 전달하고 안부를 살핌
 - 동백2동에서는 용인마을협동조합, 용인아이쿱생협, 라이더유니온 경기지부, 당신의부엌 협동조합이 함께 동백1·2·3동의 저소득 어르신 100명의 건강을 기원하며 삼계탕과 한우사골 농축액을 전달
 - 수지구 풍덕천2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정례)가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의 후원을 받아 열무김치와 삼계탕, 햇감자를 홀로 어르신 14가구에 전함
 - 죽전1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현주)가 7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45가구를 위한 삼계탕, 열무김치, 멜론으로 구성된 꾸러미로 나눔을 실천
 - 시 관계자는 “덥고 습한 날씨는 취약계층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며 “따뜻한 마음들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 나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말함
- ※ 용인시 보도자료 참조(역북동, 유림동, 서농동, 동백2동, 풍덕천2동, 죽전1동 맞춤형복지팀)

2. 중앙정부 정책 동향

1 중앙정부 복지현안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7월 11일 확진자 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



-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18일(월)부터 정부24(www.gov.kr)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
-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월) 확진자부터 기준중위 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 7월 10일(일)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음
- * 기준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 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 7월 11일(월)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하여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오프라인 신청 대상))
 -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함
 - 신청기한 설정 이전(~'22.2.13)에 격리된 사람은 '22.12.31.(토)까지 신청가능
 -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필수 첨부)
 -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가능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참조

2

중앙정부 복지현안

자살 심리부검, 죽음으로 삶을 이야기하다

< 2015~2021년(7개년 누적)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 발표(7.20) >

< 2015~2021년 심리부검 면담 주요 결과 (요약) >

* 심리부검: 자살 유족의 진술과 기록을 통해 자살사망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를 확인하여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체계적인 조사 방법

① 자살사망자 분석

- ▶ (자살 경고신호) 심리부검 대상자(801명)의 94.0%(753명) 사망 전 경고신호* 보임
 - *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주변 정리, 수면 상태 변화 등 언어·행동·정서적 변화
- ▶ (스트레스 사건) 자살사망자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
 - * 가족관계(60.4%), 경제문제(59.8%), 직업 스트레스(59.2%) 등
- ▶ (정신건강) 상당수(801명 중 710명, 88.6%)가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 (자살시도력 등) 심리부검 대상의 35.8%(287명)가 생전에 한 번 이상 자살 시도 경험,
자살로 가족 또는 친구·지인을 잃은 자살 유족이 42.8%(343명)

② 자살 유족 분석

- ▶ (심리 정서 상태) 사별 이후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한 유족(952명 중 906명) 중 97.0%(879명)는 우울 증상 등 심리상태 변화 경험, 사별 기간이 3개월 이내로 짧을수록 심각한 우울 호소
- ▶ (자살사고) 유족의 59.5%(566명)는 면담 당시 자살 생각이 있는 것으로 응답

③ 코로나19와 자살 사망과의 관계

- ▶ 2020년 이후 심리부검 대상 132건 중 코로나19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된 사례는 29건
- ▶ 29명 모두 감염병 세계 대유행(팬데믹) 이전부터 직업·경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자살위기에 취약하였으며,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 경제적 손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과 함께 최근 7년간 (2015~2021) 자살사망자 801명의 유족 95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리부검 면담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사망 전 자살자의 심리 행동 양상 및 변화 상태를 주변인의 진술과 기록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검토하여 그 원인을 탐색하는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심리부검 결과를 분석하고, 누적된 자료를 종합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 (참고) 연도별 심리부검 분석 건수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합계
사망자(례)	121	91	75	100	175	136	103	801
유족(건)	150	112	90	120	211	157	112	952

- 심리부검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경찰 등을 통해 의뢰되었거나, 유족이 직접 면담을 의뢰한 19세 이상 자살사망자들임
- 이번 분석에는 코로나19 관련 경제·사회적 변화가 자살위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의 사례가 포함

1. 자살사망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 * 7년간 심리부검 분석대상이 된 자살사망자는 19세 이상 성인 801명으로,
 - 남성 542명(67.7%), 여성 259명(32.3%)이며, 생애주기별로는 중년기(35~49세; 33.7%) 비율이 가장 높음
 - 고용상태는 피고용인이 310명(38.7%)으로 가장 많았고, 실업자(199명, 24.8%), 자영업자(132명, 16.5%)가 뒤를 이음
 - 취업상태였던 자살사망자 442명 중 140명(31.7%)이 서비스 및 판매 종사자, 62명(14.0%)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57명(12.9%)은 단순 노무 종사자
 - 사망 당시 경제상태의 경우, 소득이 전혀 없거나(18.7%) 월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22.1%)인 저소득층 비율이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의 40.8%(327명)였고, 약 50%가 부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생활비(23.5%(교육비, 의료비 제외)), 주택임차 및 구입(21.3%), 사업자금(18.5%) 등
 - 거주형태를 보면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 중 148명(18.5%)이 1인 가구로, 이 중 34세 이하 청년층 비율이 43.9%(65명)로 특히 높음

< 자살사망자(801명)의 자살상황 관련 정보 >

- ① (사망 장소) 자택(55.8%) > 공공장소(19.6%)> 야산·교외(7.9%)> 학교·직장(6.2%)
- ② (사망 방법) 목매(51.8%) > 추락(20.6%) > 가스중독(14.9%) > 익사(2.9%)
- ③ (최초 발견자) 가족(46.3%) > 모르는 사람(18.6%) > 경찰·소방(15.4%)
- ④ (음주 여부) 비음주(48.2%) > 음주(32.0%) > 파악 안 됨(19.9%)
- ⑤ (유서*) 남기지 않음(52.1%) > 유서를 남김(46.7%)
- * 내용 : 가족, 친구 등을 향한 개인적 메시지(86.1%), 자살 이유(28.1%), 사후처리 부탁(22.5%)

2. 자살 사망원인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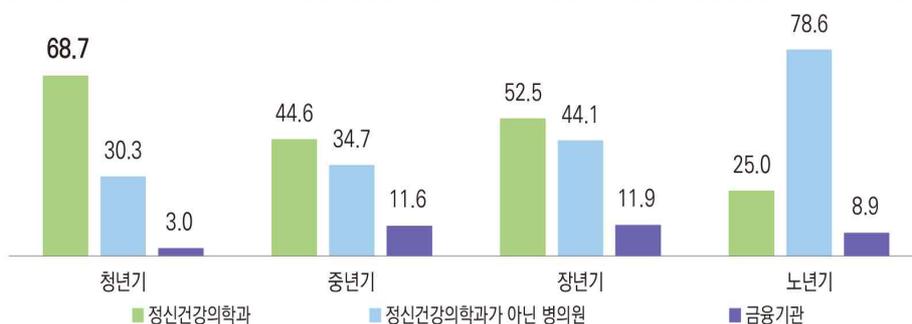
- * 심리부검 면담 대상자가 사망 전 경험한 스트레스 사건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 1명당 평균 3.1개의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주요 사건은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60.4%), 부채·수입 감소 등 경제문제(59.8%), 동료 관계·실직 등 직업문제(59.2%) 순으로 비율이 높음
- * 자살사망자는 스트레스 사건 발생 뒤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 또는 악화하여 자살에 이르는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 중 상당수(801명 중 710명, 88.6%)가 정신과 질환을 진단받았거나,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유족이 질환명을 모르는 경우 보충적으로 평가도구를 통해 정신질환 추정
 - 특히 전(全) 연령층에서 우울장애가 8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32.8%), 불안장애(22.4%) 등이 뒤를 이음
 -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나 상담을 받은 자살사망자는 심리부검 대상자의 52.8%(423명)로 여성(70.7%)이 남성(44.3%)에 비해 높음
- * 사망 전 3개월 이내 도움을 받기 위해 기관을 방문했던 자살사망자 394명 중 50.3%(198명)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였고, 42.6%(168명)는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방문 기관에 차이가 있었는데, 청년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68.7%)를 가장 많이 찾았고, 노년층은 정신건강의학과가 아닌 일반 병·의원(78.6%)을 찾는 비율이 가장 높음
 - 한편 중·장년기 자살사망자의 경우 약 12% 정도가 병·의원 외에 금융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남

< 자살사망자의 사망 3개월 전 방문 기관 (2015~2021, 다중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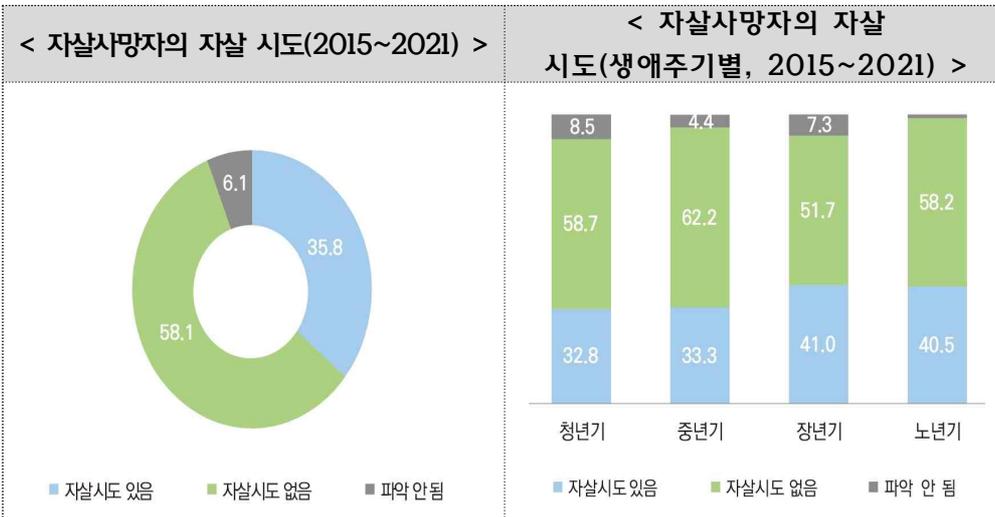
< 생애주기별 분석 결과 (2015~2021, 다중응답) >



※ 청년기(20~34세), 중년기(35~49세), 장년기(50~64세), 노년기(65세 이상)

3. 과거 자해·자살 시도경험은 자살 재시도, 사망으로 연계될 확률이 높음

- * 심리부검 대상자의 35.8%(287명)는 사망 전 과거 1회 이상 자살 시도를 했던 경험이 있으며, 10.2%(82명)는 자해 행동을 했던 것으로 나타남
 - 자살 시도경험은 생애주기별로 균등하게 분포된 반면, 여성(46.7%)이 남성(30.6%)에 비해 높아 성별 간 차이를 확인
 - (장년기) 41.0% > (노년기) 40.5% > (중년기) 33.3% > (청년기) 32.8%



· 자해 행동은 특히 청년기에서 18.6%(46명)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해 행동을 한 자살사망자(82명)의 56.1%에 해당하는 수치

4. 자살위험에 취약한 유족에 대한 사별 직후 지원 필요

- * 심리부검 면담에 참여한 유족 952명 중 95.2%(906명)는 사별 이후 일상 생활에서 변화를 경험하였고, 특히 심리상태의 변화(97.0%)가 두드러짐
 - 유족의 83.3%(793명)는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60.9%(580명)는 중증도 이상의 우울 상태인 것으로 파악됨
 - 사별 기간이 3개월 이하로 짧은 유족의 경우 심각한 우울을 호소하는 비율이 25.4%(51명)로 높았고, 특히 고인과의 관계에서 유족이 부모(28.0%) 및 배우자(25.6%)인 경우 심각한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남
 - 면담에 참여한 대부분의 유족(71.4%)이 수면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6%(196명)는 음주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한편, 복합비에 항목 조사 대상 480명 중 80.0%(384명)가 경계성 이상의 복합비에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 약 60%의 유족(566명)이 면담 당시 자살 생각이 있다고 답했는데, 사별 기간이 3개월 이하(61.2%)로 짧거나, 25개월 이상(61.5%)으로 긴 유족에게서 자살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음
 -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서는 유족이 부모일 때 자살 생각 응답 비율(69.2%)이 가장 높고, 형제·자매(61.1%), 배우자(59.3%), 자녀(56.5%) 순

- * 자살 유족의 72.3%(688명)는 고인과 유족을 향한 비난, 가족이 받을 충격 등을 우려해 자살 사실을 알리지 못한 대상이 있다고 응답
- * 심리부검 대상 자살사망자의 42.8%(343명)는 생존 당시 자살로 가족, 지인(친구, 직장동료 등)을 잃은 자살 유족인 것으로 나타나 자살시도자뿐 아니라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

5.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와 자살사망의 관계

- * 2020년 1월 이후 자살사망자 132명 중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살사망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29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 모든 사례가 코로나19 상황 이전부터 직업·경제, 대인관계,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자살에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가 자살사망 발생과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코로나19 영향과 관련된 자살사망자(29명) 기초분석 결과 >

☞ 사례 수가 적고, 면담 신청 유족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과의 일반화에 어려움 존재

☞ 분석에 포함된 29건의 사례 중 코로나19 감염사례는 없음

- ① (성별) 남성(65.5%, 19명), 여성(34.5%, 10명)
- ② (연령) 30대(31.0%, 9명), 20대(31.0%, 9명)
- ③ (고용) 피고용인(24.1%, 7명), 자영업자(24.1%, 7명), 실업자(17.2%, 5명)
- ④ (혼인) 미혼(51.7%, 15명), 기혼(41.4%, 12명)

- 29명의 생애 스트레스 사건을 분석한 결과, 19명(65.5%)은 사망 전 직업 스트레스를, 23명(79.3%)는 경제 스트레스를 경험
 - 사업부진·실패를 겪은 경우는 9명으로 대부분 관광·문화·교육 산업 종사자였으며, 관련 산업의 실직자도 2명 있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 어려움을 겪은 자살사망자도 2명 있었음
 - 경제적 스트레스를 경험한 23명 중 10명은 부채, 8명은 현재 혹은 미래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자살사망자(28명, 96.6%)가 정신과 질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5명은 코로나19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 사건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악화한 경우로 파악됨

※ 보도자료 참조(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냉·난방비 긴급 지원

< 산업부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으로 냉·난방기기 등 긴급 지원도 실시 >

- *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폭염 속에서 공공요금 인상 등 고물가로 인해 아동의 안전한 돌봄이 취약해질 수 있어 마을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 냉·난방비 비용 및 냉·난방기 보급 등을 지원
- * 보건복지부는 전국 마을돌봄시설('22.5월 기준 5,060개소*)에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월 10만 원씩 운영비를 추가 지원하여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하고 겨울철 난방비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지역아동센터 4,31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750개소로, 5월 이후 신규 개소 시설도 연말까지 운영비 추가 지원 예정)
 - 여름철 폭염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7월 중으로 긴급 지원 운영비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
- * 아울러, 산업부는 지역아동센터 약 120개소에 고효율 냉·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창호 교체, 단열 시공 등 에너지 효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
 - 산업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기준 및 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에 대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전액 국고로 지원(별도 시설 부담금 없음)되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별도 안내할 예정

<에너지효율개선사업(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원내용>

- ① (시공지원) 단열·창호·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 ② (물품지원) 가스·기름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지원(전기, 심야 보일러 제외)
- ③ (기타공사) 에너지효율개선 또는 안전 등과 관련된 시공(핸드레일 등 최대 300만원)

- * 상세 지원내용 후 방문 조사 후 결정,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 품목은 제외 될 수 있음
-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학령기 아동은 누구나 집 근처에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대표적인 아동돌봄시설로,
 - 올해 5월 기준, 전국 5,060개 센터에서 약 12만 6,000명의 아동이 방과 후에 돌봄 공백없이 전문 종사자의 보호를 받고, 생활지도, 학습활동, 놀이와 오락, 다양한 체험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

< 마을돌봄시설 주요 현황 >

구 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제공 서비스	아동보호, 교육, 정서지원, 문화서비스 등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지원 등
이용 대상	만 18세 미만 아동* * 돌봄 취약계층 우선 선정	만 6~12세 아동
이용 시간*	(학기) 14:00~19:00 (방학) 12:00~17:00	(학기) 14:00~19:00 (방학) 09:00~18:00
현황 ('22.5)	센터 수	4,310개소
	이용 아동	109,949명
	종사자 수	9,900명
		750개소
		16,197명
		2,433명

※ 보도자료 참조(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

보육사업안내 일부 개정(8.1. 시행)

< 장애아동 통합보육 정원을 확대하고, 보육대체교사 지원 확대 >

- * 보건복지부는 7월 25일(월)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2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
- * 이번 개정은 보육서비스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장애아동을 통합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정원 기준과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범위 등을 개선하고, 6월 22일 시행된 영유아보육법령 개정내용을 지침에 반영
- * 개정된 「2022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내용
 - 첫째,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장애아 정원을 확대
 - 기존에는 장애아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집 정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하였으나, 이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30%까지 허용하여 더 많은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둘째, 대체교사 지원범위를 확대
 - 기존 지원범위인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으로 인한 보육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외에도, ‘보육교사가 가족의 질병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간 최대 3일까지 대체교사를 지원하도록 확대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함
 - 셋째,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경비 중 ‘현장학습비’로 인정하는 범위 확대
 - 기존에는 ‘현장학습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 수련회 등의 활동으로 한정하였으나,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이나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의 경우에는 현장학습비로 회계 운영이 가능하게 함
 - 넷째, 2022년 6월 22일 개정·시행된 영유아보육법과 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을 지침에 반영
 - 2011년 4월 7일 전에 인가받은 4·5층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확보를 위해 건물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해 왔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만으로도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개선사항을 반영
 -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북한 이탈주민 자녀인 영유아’가 포함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대상자를 확인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 한국보육진흥원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함에 따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정원 등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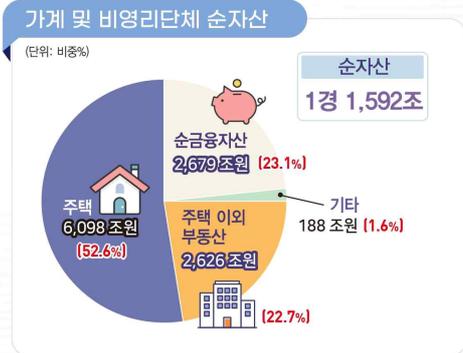
※ 보도자료 참조(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3. 통계로 보는 복지

1 중앙 통계현안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 주요 특징



※ 자료 : 통계청 자료(경제통계국 소득통계과)